

장례식장에 불어넣은 문화 향기...예술 명소된 빈민가

나눔·교류·소통...
공유 경제,
문화 예술을 입다

2 파리 '상카르트 104'

파리 = 김미은기자

8월 초 프랑스 파리 외곽에 위치한 문화공간 '상카르트 104'(le Centquatre)를 찾았다.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긴 직사각형 모양의 넓은 광장에서 춤을 추는 청소년들의 모습이었다. 대형 거울 앞에서 몸을 움직이는 그들은 한없이 자유로워 보였다.

광장 이곳 저곳에 놓인 의자에 앉아 음악을 듣거나, 책을 읽는 이들도 눈에 띄었다. 광장 끝쪽, 정문이 시작되는 통로에는 세계적인 팝 아티스트 키스 해링 특별전 중 하나로 대형 작품이 전시돼 있다. 지역민들은 미술관에 가야겠다는 '큰 마음' 먹지 않고도, 항상 개방된 중앙 통로를 지나다니며 미술작품을 관람하고, 키스 해링의 비디오 영상을 감상하는 행복을 누리고 있었다.

파리 19구에 위치한 '상카르트 104'는 1874년 문을 연 오래된 공간이다. 오랫동안 관, 비석 등 파리 시민들이 사용할 장례용품을 만드는 곳이었으며 1900년대 초부터는 파리의 장례식장으로 쓰였다. 장례식장으로 기능을 멈춘 1997년 이후 이곳은 버려진 공간이었다. 이후 파리의 지원 아래 1억2000만유로(약 1530억원)를 투입, 리노베이션 과정을 거쳐 2008년 복합문화공간 '상카르트 104'로 탈바꿈했다. 리노베이션 당시에는 산업혁명의 자취가 담긴 역사적인 건물의 흔적을 그대로 살리기 위해 고심했다. 공간 이름 '상카르트 104'는 건물이 자리한 번지 수에서 따왔다.

'상카르트 104'는 지역 밀착형 복합문화시설로 지역민과 예술가들이 함께 공간을 공유하고 있다. 개관 당시 파리 19구는 거주민의 60%가 정부 주택 보조를 받는 낙후된 지역 중 하나였다. 현재도 지역민의 3분의 1이 실업자이고, 청소년 보호시설이 가장 많은 지역이기도 하다. 파리는 이곳에 문을 여는 문화시설은 여타 파리 시내 박물관이나 미술관처럼 '예술적인 부분'에만 방점을 두는 대신, 지역민과 함께하는 '사회적 관계' 부분에도 힘을 실어달라는 생각으로 공간을 구성했다.

청소년들이 춤을 추던 광장은 당초 정문과 후문을 연결하는 '길'이었다. 초반에는 이곳을 정원으로 조성했다. 이후 누구나 와서 춤추고, 노래하고 다양한 문화 활동을 하는 열린 무대로 만들었다. 예전 마굿간이었



장례용품 생산업체들이 입주하고 장례식장으로 활용됐던 1874년(産) 건물은 지역민들을 위한 복합문화공간 '상카르트 104'로 변신했다.

/파리=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파리시, 140년 건물 1500억원 들여 리모델링 정문·후문 통로 춤추고 노래하는 열린 무대로 마굿간 전시장 탈바꿈...작년 640여 공연·전시 최근 3년 150만명 방문...지역민 밀착형 공간

던 반지하 공간은 '상카르트 104'의 트레이드 마크가 된 미케란젤로 피스톨레토의 대형 설치 작품 '미로'가 자리잡고 있다.

'상카르트 104'는 예술가들에게도 영감을 주는 공간이다. 현재 이곳에는 19개의 아틀리에가 자리하고 있으며 디렉터가 직접 입주작가를 선정한다. 지난해에는 전세계에서 240여명의 작가들이 머물다 갔다. 이곳에서 북한 관련 작업을 진행중인 한국 작가 권하은(31)씨는 "미술 뿐 아니라 등 다양한 장르의 아티스트들이 활동하는 곳이 많은 영감을 받는다"고 말했다. "19구가 문화 취약지구인데 상카르트 덕분에 분위

기가 확 바뀌었고 항상 사람들로 북적인다. 일반 갤러리는 특정인들만 오는 데 이곳은 다양한 연령대의 시민과 교류할 수 있는 게 가장 큰 장점이다. 한달에 한 번씩 프로그램을 짜서 대중들과 만나고, 인근 학교에서도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권씨는 무엇보다 대중과의 '소통'이 작업을 하는 데 자극이 된다고 했다.

수용 가능 인원을 그대로 공간 이름으로 삼은 공연장 '200', '400'과 갤러리, 광장의 오픈 무대 등 이곳에서는 진행되는 문화행사는 다채롭다. 연극, 춤, 음악, 전시, 마술, 서커스 등 다양한 장르를 아우른다. 지난해

이곳에서 열린 행사는 9개 대형 전시회, 12번의 대규모 축제, 620회의 무대 공연 등 모두 640여회에 달한다. 최근 3년간 이곳을 다녀간 사람도 150만명에 이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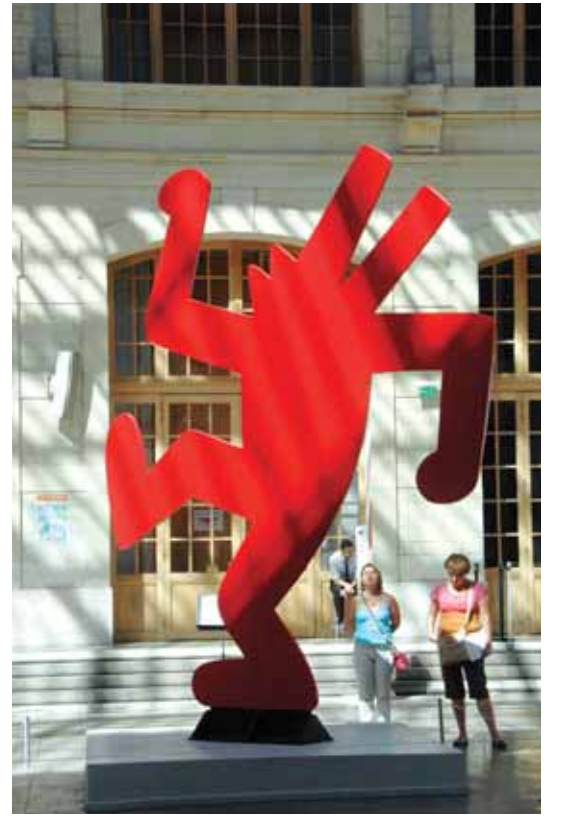
1층에 위치한 예술 체험 공간 '어린이의 집' 역시 지역민과 함께하는 곳이다. 2명의 심리학자와 1명의 아티스트가 상주하며 아이들의 예술활동을 돕는 이곳은 예약만 하면 지역주민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상카르트는 파리 18~19구 내 44개의 학교와 10여 개의 사회단체, 12개의 대학, 보육원, 병원, 장애인 시설 등과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상카르트 104'의 비약적 발전 뒤에는 2010년 신임 디렉터로 부임한 조제 마누엘 곤잘레스(Jose-Manuel Goncalves)가 있다. 파리 디즈니랜드에서 근무했던 그의 모토는 "모든 공간을 쉽게 활용하라"였다. 이후 이곳은 닫힌 공간에서 열린 공간으로 변모했다.

운영비는 연간 1180만 유로가 소요되며 이중 800만 유로는 파리가 지원하고 나머지 비용 중 3분의 1은 행사 등 입장료, 3분의 2는 후원금으로 충당한다.

홍보 담당 가이드 마리 시빌라 리니(Marie Sybille Laine)씨는 "상카르트 104는 지역민과 함께하는 공간으로 문화 공간을 지역민들에게 이렇게 완벽하게 공개하는 경우가 드물어 시민들의 반응이 좋다"고 말했다.



키스 해링 특별전을 관람하는 주민들.

/mekim@kwangju.co.kr

라 빌레트 과학관

도축장이 '과학 놀이터'로...놀며 배우는 물리·생물

문화 취약 지구로 꼽히는 파리 19구에 자리한 '라 빌레트'(La Villette) 공원 역시 파리 문화 지도를 다시 그린 공간이다. 1970년대까지 도축장이었던 이곳은 1982년 도시 재개발 프로젝트 일환으로 대대적인 개발에 들어갔다.

30ha 규모에 그랜드홀, 제니스 극장, 음악학교, 영화관, 무용학교 등과 함께 1986년에 조성된 라 빌레트 과학관은 특히 라 빌레트 공원의 대표적인 문화 시설이다. 2011년 이곳을 다녀간 관람객은 400만명에 달했다.

1층은 아동과 청소년을 위한 과학체험관으로 운

영되고 있으며 2층은 12세 이상의 성인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하며 매년 다양한 기획전을 열고 있다. 지난 8월초 방문 시에는 레오나르도 다빈치 전이 진행되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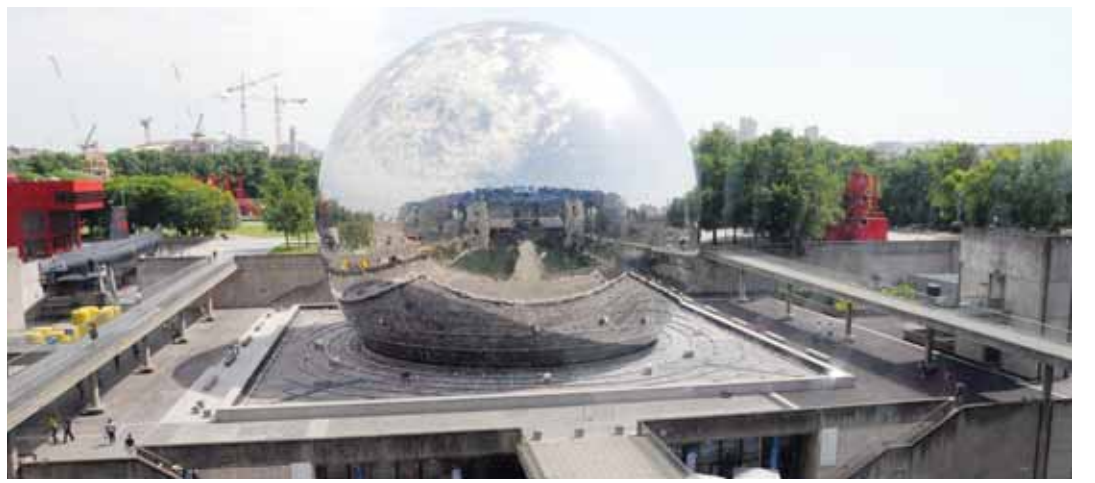
다양한 코너를 갖춘 과학관에서 가장 인상적인 공간은 1992년 문을 연 1층 '어린이들의 도시'(Children's City)다. 체험형 전시를 뜻하는 '핸즈온(hands on)' 개념을 가장 먼저 도입한 곳으로 직접 만지고, 느끼는 과정을 통해 자연스럽게 과학을 이해하도록 하고 있다.

2~7세와 5~12세 공간으로 나뉜 이곳은 아이들

의 '재미있는 과학 놀이터'이자, 동화속 나라 같았다. 신체, 물리, 생물 등 과학의 여러 분야를 '놀이'처럼 즐기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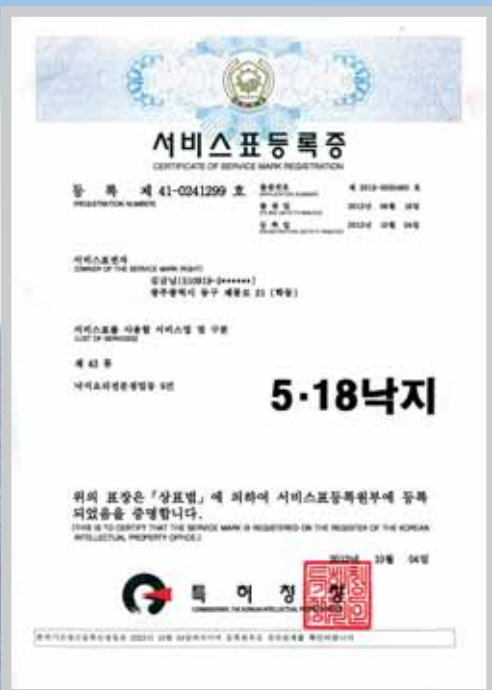
브리기테 کوت탕트(Brigitte Coutant) 라 빌레트 과학관 국제홍보국장은 "과학도 문화의 일부라는 취지에서 일반인들이 생활속에서 과학을 친숙하게 느낄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다"며 "일반적인 과학외에 경제, 주거 등 사회적 이슈와 관련한 전시와 과학과 예술의 접목을 지속적으로 시도한 전시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3D 영상관인 '라 제오드'는 라 빌레트 과학관의 트레이드 마크다.

※ 이 취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낙지의 명가 5.18낙지
체인점 사장님을 모십니다.

체인점 문의 ☎ 061-375-2383
HP. 010-6656-0002

상표등록 : 41-0241299호

